

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울진군청과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2005년 8월 15일 매화만 세공원 안에 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3월 1일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8) 홍시동(紅矢洞)

옛날 이 마을에 정려(旌閭)의 홍살문이 세워졌던 곳이라 하여 홍시동(紅矢洞)이라 전한다. 현재 읍내2리인 울진교(蔚珍橋) 일대 지역의 마을이다.

9) 홍시동성황당(紅矢洞城隍堂)

매년 음력 정월 15일 자시(子時)에 엄선된 제관(祭官)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태풍 사라호 후에 읍내2리 현 위치에 사당을 건립하였다.

제18절 정림1리(井林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독고산(獨高山)이 있고, 남대천(南大川)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다. 서쪽은 산(山)모퉁이에 정림3리인 산두동(山頭洞)이 있으며, 남쪽은 남대천(南大川) 건너에 용저동(龍渚洞)이 있고, 북쪽은 천지봉(天池峯) 너머로 북면 사계리 지역이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비봉산이 흡사 ‘봉황이 나래를 펴고 앉아 있는 형국’으로 울진지역의 길지로 여겨진다. 고려조 사찰인 정림사지가 현존한다.

2. 마을의 역사

1600년경에 남양 방씨(南陽房氏)가 처음 마을을 개척(開拓)하여 냇가의 물을 식수(食水)로 이용하면서 마을 이름을 정계(井溪)라 하였다고 하며 또는 계림(溪林)이라 하였다는 설(說)도 있다. 그 후 절골에 고려조 사찰인 정림사(淨林寺)가 있었다 하여 정림(淨林)으로 개칭(改稱)하였고, 1914년 이후에 정자(井字)를 써서 정림(井林)이라 표기하고 있다. 현재는 영양 남씨(英陽南氏) 집성촌이다. 마을 입구 위치한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을의 동쪽 초입에 비보(碑補)풍수를 담은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3. 가구 분포

총 4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주를 이루는 집성촌이며, 파평 윤씨(坡平尹氏), 신안 주씨(新安朱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곰실

골짜기의 형국이 ‘곰이 엎드려 있는 모양’이라 하여 곰실이라 부른다.

2) 방가골(房哥谷)

옛날 마을을 개척(開拓)한 방씨(房氏)들이 좋은 가세(家勢)로 살았다 하여 방가골(房哥谷)이라 부르는데, 지금도 방씨들의 고묘(古墓)와 비석(碑石)이 있다.

3) 봉림사(鳳林祠)

봉림사(鳳林祠)는 간재(艮齋) 전우(田愚)를 모시는 사우이다. 삼문을 세우고 토담에 기와를 얹어 사우를 둘러는데, 지금은 매우 퇴락했다. 1969년에 전우의 문인인 무실재(務實齋) 남진영(南軫永)이 경신계(景愼契)를 창건하고 전우의 진상(眞像)을 봉안하여 ‘봉강영당(鳳岡影堂)’이라 칭했으며, 1978년에 봉림사로 개칭했다. 상복(喪服) 차림의 전우 진상은 당시 유교 복식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4) 비봉산(飛鳳山)

정림리의 절골 뒤횚에 위치해 마을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며 ‘봉(鳳)이 나래를 펴고 비상하는 형국’이라 하여 비봉산(飛鳳山)이라 한다.

5) 성황당(城隍堂)

노송(老松)을 성황신(城隍神)으로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보름 자시(子時)에 엄선된 제관(祭官)이 마을의 강녕(康寧)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6) 소행재(素行齋)

울진읍 정림리에 있으며, 무실재 남진영이 강학을 하던 사우이다.

7) 송정(松亭)

마을 앞 제방(堤防)에 송림(松林)이 울창하여 정자(亭子)의 역할(役割)을 해주었다. 마을 사람은 물론过客(過客)의 휴식처로 좋은 곳이었으나, 지금은 옛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마을의 허(墟)한 곳을 보충하기 위해 가꾼 비보(裨補) 숲이다.

8) 신선대(神仙臺)

마을 앞을 흐르는 남대천의 절벽으로 옛날에 신선(神仙)이 놀았다고 하며 풍류객(風流客)이 놀았다고도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9) 장대룡장군(張大龍將軍)의 묘소(墓所)

이 마을 사리곡(獅狸谷) 동편(東便) 천지봉(天池峯)의 첫 산등에 있다.

10) 정림사지(淨林寺地)

정림리 절골의 비봉산 아래에 있는 고려시대 사찰인 정림사의 터이다. 현재는 밭으로 이용되며 이곳에서 사지의 주춧돌과 석탑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5. 장고진사댁 전설

정림마을에서 출생한 영양인(英陽人) 남응대(南應大)·남응협(南應夾)·남응태(南應泰) 3형제가 모두 총명하고 학문에도 뛰어났다. 그중에서도 둘째인 남응태가 더욱 뛰어났다고 한다. 1847년(헌종 13)에 3형제가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여, 맏형과 셋째는 급제(及第)를 하였으나, 둘째는 낙방(落榜)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선조(先祖)의 못자리가 장고(長鼓) 형국 이어서 장고(杖鼓)는 양단(兩端)이 둥글면서 높고 중간(中間)은 잘록하게 생겨 있어 높은 양단(兩端)은 형(兄)과 계(季)씨이므로 합격하였고, 잘록한 중간은 중씨(仲氏)이므로 낙방하였다고 한다. 이들 삼 형제가 태어난 본댁(本宅)을 장고진사댁(長鼓進士宅)이라 부르고 있다.

제19절 정림2리(井林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마을 뒷산 너머에 명도2리인 세거리와 아산동(鵝山洞)과 접하고, 서쪽은 마을 앞